

# 역대 최대급 국제 크루즈선 여수 온다



전남도는 14일 대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5000t급 크루즈선인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가 여수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전장

330m, 폭 38m, 14만 421t 규모다. 승객 4076명, 선원 1320명 등 여수엑스포항 개항 이후 가장 많은 5400여 명을 태우고 방문한다.

지난 2016년 9월 중국 커터

전남도, 오늘 대만서 5400여 명 입항  
여수세계박람회장·순천만 등 방문

(KELTD)그룹 인센티브 관광단 4518명이 로열캐리비안 선사의 미리나호(14만t급)를 타고 여수엑스포항을 방문한 바 있다.

크루즈선으로 여수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개별여행 및 출행 동선을 이용해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여수항 크루즈 전용부두는 지난 2018년 15만급까지 접안할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확장했으나, 2019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만~8만t급 이하의 크루즈선만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번 14만급 크루즈선의 입항은

크루즈 기항관광지로서 전남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대규모 관광객을 위한 상품 구성이 가능한 최적의 기항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명진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도와 여수시, 항만공사, 문화관광재단, CIQ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크루즈선 입출항 불편이 없도록 하고, 쇼핑과 식당 등 대규모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를 점검해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크루즈선 입항 마케팅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지난해 30대 기업 연봉 평균 7.1% 증가

30대 상장사 작년 연봉 +7.1% 상승  
**SK하이닉스 +26.4% 올라 1위**

\* 시가총액 30대 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 자료제공: 잡코리아



JOBKOREA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직원 1인평균급여가 전년 대비 7.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시총 30대 기업 1인평균급여 인상을 조사  
인상을 루즈 기업 SK하이닉스·아모레퍼시픽·카카오

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개 기업 중 직원평균급여를 모두 공개한 27개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시총 상위 30대 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평균급여 인상률은 남직원 7.3%로 여직원(6.2%) 보다 소폭 높았다.

직원 1인평균급여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직원 1인평균급여가 전년 대비 26.4% 증가며 1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으로 1년 전 보다 22.6% 상승했다. 뒤이어 카카오(+17.9%), 삼성물산(+16.7%), SK이노베이션(+15.3%) 순으로 집계됐다.

남직원과 여직원 1인평균급여 인상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의 남직원 1인평균급여 인상률은 23.5%, 여직원은 28.9%로 조사대상 기업 중 가장 높았다.

남직원의 1인평균급여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18.8%), 삼성물산(18.6%), SK이노베이션(17.4%), 카카오(16.4%) 등으로 조사됐다.

여직원의 1인평균급여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SK하이닉스(28.9%)의 뒤를 이어 아모레퍼시픽(23.9%), 카카오(21.3%) S-Oil(17.0%), 현대중공업(13.0%) 순이었다.

## 'LG V50' 공짜폰 대란

### 방통위, 이통 3사에 경고

10일 출시 V50 쌍큐, 불법보조금에 0원 폰 난립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출시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쌍큐(ThinQ)'의 공짜폰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V50 쌍큐의 공시지원금이 높게 형성되며 지난 주말 조금만 불법지원금을 주면 곧바로 공짜폰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오늘 오후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시장 분위기 알리고 (불법보조금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스마트폰 집단상기에 서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0원 텁승 완료 했다', '뻥집에서 V50 구매하고 있다', '뻥집에서 기변 탈출'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뻥집은 실 구매가 0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V50 쌍큐가 출시된 첫 날부터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는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은 출고가 119만 9000원의 V50을 기기변경 고객 및 티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일선 유통망에 평균 80만원~9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

트를 공시지원금 외 불법보조금 웃돈으로 활용하며 V50을 첫 날부터 사실상 공짜에 판매했다.

특히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이밍 요금제 기기변경 기입시 공시지원금 68만원 위에 56만9000원을 기기변경시 66만9000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10만원(페이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통 3사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상 최대의 공시지원금을 설정한 데다 불법보조금까지 더해지며 신규 스마트폰이 0원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V50' 출시하며 월 12만5000원의 플래티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77만3000원으로 가장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KT는 월 13만원의 '슈퍼 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 60만원, LG유플러스는 9만5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57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불법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가 단발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공시지원금의 상한제 규정이 일몰됐다.



\*기타대출: 일반신용, 마이너스통장, 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 은행 주택담보대출 올 최대 증가

기계대출 5.1조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 영향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의 4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의 '기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기계대출은 838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 달 전(2조9000억원) 수준보다 확대된 것으로 5조4000억원 늘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넓힐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커졌다.

다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올해 4월 수준과 비교하면 지난 2014년 4월(2조000억원 증가)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대출이 급증한 2015~2018년 4월 평균 증가규모가 5조900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상당폭 격인 셈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예년에 비해서도 몸집을 상당폭 불렸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61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4조9000억원 증가) 이후 넓힐 만에 최대치였다. 4월 기준으로도 지난 2016년 4월(4조6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입주와 관련된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4000호로 전월(8000호)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입주물량은 1만호로 전월(1만9000호)보다는 축소 됐으나 2016년 4월(5000호), 이듬해 4월(5000호)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9000억원 늘어 전월 수준(1000억원 증가) 비해서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동월 기준으로는 2016년 4월(7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1~3월에 비해 기타대출 증가폭이 커진 것으나 연초 설·상여금 유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있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 1조1000억원 늘어난 데에 반해 지난달 6조6000억원 증가해 규모를 키웠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 3월 2조3000억원 감소했으나 지난달 1조6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별 일시 상황에 따른 재취급된 영향이다.

지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4000억원 늘어난 3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2금융권 기계대출은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규모(2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큰 폭 축소됐으나 전월(-2조원)에 비해서는 2조6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1조4000억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기타대출이 2조원 증가한 영향을 빙자했다.

이에 전금융권 기계대출은 5조 1000억원 늘어 올 들어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증가규모(2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큰 폭 축소됐으나 전월(-2조원)에 비해서는 2조2000억원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